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14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뜨거운 물가, 더 뜨거운 반도체..S&P500 '최고가'

- 미국증시 혼조: 다우 -0.14%, 나스닥 +1.2%(ATH), S&P500 +0.58%(ATH)
-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6%↑, 2022년 이후 최대폭 상승
- S&P500 종목 3분의 2 하락..반도체 쏠림 현상 뚜렷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 약세..나스닥·S&P500 '사상 최고가'

5월 13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 전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이어 이날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 상승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였지만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세가 뜨거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눌러 지수는 상승세를 회복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회담을 통해 이란 전쟁 관련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키운 것도 시장 강세 흐름을 뒷받침. 다만 반도체 중심의 지수 최고가 랠리에도 특정 섹터 편중, 쏠림 현상은 다소 경계되는 부분. 이날도 S&P500 종목 중 3분의 2가 하락 마감.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소매 업체와 금융주 등이 하락,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4% 밀린 49,693.20에 거래를 마침. 다만 기술주 강세를 반영해 나스닥 지수가 1.2% 상승한 26,402.34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도 0.58% 상승한 7,444.25에 마감함.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일 하락을 딛고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04% 상승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67% 하락한 17.87에 마감.

(다우 -0.14%, 나스닥 +1.20%, S&P500 +0.58%, 러셀2000 +0.04%)

뜨거운 물가

미국 노동통계국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집계해 공개. 4월 미국 PPI는 전년 대비 6.0% 상승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상승률로 최고를 기록. 전월 대비 상승률도 1.4%를 기록해 지난 2022년 3월 이후 최고. 전년 대비 수치와 전월 대비 수치 모두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으며 앞서 발표했던 지난 2월과 3월 상승률도 각각 상향 조정함.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2%, 전월 대비 1.0% 상승해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 에너지 가격이 전달에 비해 7.8% 상승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특히 휘발유 가격이 15.6% 급등해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에 40% 기여함. 에너지 가격과 함께 서비스 가격이 큰 폭 오른 것도 생산자 물가 상승의 약 60%에 기여했는데 특히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받는 마진 변화를 측정하는 거래 서비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2.7% 상승. 다만 연준이 보다 주목하는 PCE 가격 지수에 포함되는 포트폴리오 서비스가 2.4% 하락하는 등 PPI 상승이 고스란히 PCE 가격 지수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인다는 점은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가 연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함.

한편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고조와 관련한 경계감을 드러냄.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미국의 노동 시장이 올 초 대비 다소 개선됐지만 인플레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음.

더 뜨거운 반도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과 그로 인한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전반적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이지만 시장은 그보다 더 뜨거운 AI발 반도체주 투자심리에 힘입어 상승.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했다는 소식은 중국에서의 칩 판매 재개에 대한 기대로 관련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AI 생태계 내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이퍼 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큰 수혜는 반도체 기업들이 누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내러티브는 여전히 유효해 전일 하락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급 유입으로 이어짐. 전거래일 사흘만에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57% 반등했고 VanEck 반도체 ETF(SMH)도 2% 반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메모리 업체 편입 비중이 높은 RoundHill 메모리ETF(DRAM)은 전일 6%대 하락 이후 이날 6%대 반등을 기록.

모건스탠리는 S&P500 지수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8,300으로 제시했으며 연말 목표치도 기존 7,800에서 8,000으로 상향함. 모건스탠리는 현재 시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기대 오르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 실적 회복세는 향후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돼 지수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인준

미 연방 상원은 이날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함.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끝나며, 워시는 이르면 이번주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예정. 워시를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워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음. 다만 워시는 앞선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특정 금리 결정에 대해 약속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 연준 의장이 된다면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함. 최근 물가 지표가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워시가 주재하는 첫 FOMC 회의는 다음달 16~17일로 예정. 이 회의에서 그가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미국 금리의 방향성, 나아가 연준의 독립성 논란에 대한 시장 시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오늘 미-중 정상회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도착해 오늘(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 미국 대통령으로는 9년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양국 무역 문제, 이란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이번 방중과 관련해 동행 기업 최고경영자(CEO) 명단에 빠져있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경유지에서 뒤늦게 합류하면서 H200 인공지능 칩의 중국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기도 했음. 젠슨 황 CEO는 최근 미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대한 중국 판매 허용 문제를 적극 설득해왔던 바 있음.

특징종목

반도체 등 AI 관련주 재반등

전일 아시아장에서 반도체주가 장 중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어 미국증시에서도 반도체주는 전일의 하락을 뒤로 하고 반등함.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 가운데 중국에서의 칩 판매 재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엔비디아(+2.29%)가 상승했고, 이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83%), 퀄컴(+1.3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3.78%), 램 리서치(+2.14%),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25%) 등이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7% 반등했고, RoundHill 메모리 ETF(DRAM)가 6.32%, VanEck 반도체 ETF가 2.00% 반등함.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는 광통신 관련주에도 강세 요인으로 코히어런트(+7.94%), 루멘텀 홀딩스(+3.83%), 코닝(+4.17%) 등이 동반 상승. 코히어런트 CEO 역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함.

M7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0.63%)를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 특히 테슬라(+2.73%)가 테슬라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 론 배런 배런 캐피털 CEO가 이 주식을 계속 매입할 계획이라며 향후 10년 안에 주가가 2,000달러에서 2,50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자 강세. 구글 모회사 알파벳(+3.06%)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 경쟁력이 부각되며 상승. 검색, 유튜브 기반 현금 창출력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주가 상승으로 반영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 메타 플랫폼스(+2.26%)도 광고 매출 성장세와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로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마이크로소프트(-0.63%)는 오픈AI와의 독점적 클라우드 구조가 완화되고 오픈AI가 아마존, 구글과도 협력하면서 향후 AI 인프라 독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상대적 약세.

인플레 걱정에 금융, 소비재주는 약세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환경은 결국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금융, 소비재 관련주는 약세. JP모건체이스(-1.52%), 뱅크오브아메리카(-1.85%), 비자(-1.87%), 마스터카드(-1.83%), TJX(-2.15%), 룰루레몬(-3.13%), 로스 스토어(-2.71%), 다든 레스토랑(-3.17%), 홈디포(-2.55%), 로우스(-1.81%).

이외 특징주

시스코 시스템즈(+2.60%)가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은 강누데 시간외 급등, AI 관련 주문 급증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올들어 인공지능 인프라와 하이퍼스케일러 부문에서 53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고 밝힘. 연간 수주 전망치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상향했고 매출 전망도 기존 대비 상향. 다만 회사는 전체 인원의 5%에 달하는 약 4천명의 직원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발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20% 이상 급등.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7.74%)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130달러였던 목표주가를 175달러로 상향한 가운데 크게 상승. 클라우드플레어(+3.12%), 데이터도그(+2.69%) 등이 동반 상승.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 그룹(+15.72%)도 급등.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84% 급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클라우드 및 GPU 용량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 네비우스는 또 펜실베이니아주에 최대 1.2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과 새로운 AI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위성 통신 업체 에코스타(+2.98%)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회사의 400억 달러 규모 무선 주파수 대역 매각을 승인하자 상승했고, 에너지 업체 넥스트파워(+8.77%)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을 재료 삼아 급등.

중국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 홀딩(+8.18%)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거래에서 큰 폭 상승.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혼조

미 국채금리는 단기물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혼조세를 보임.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일부 세부 항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다는 점이 부각됐고 최근 지방 선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해 급등했던 영국 국채(길트) 금리가 진정되자 미 국채 금리도 추가 상승의 동력을 잃는 모습. 국제유가가 일단 하락으로 돌아선 점도 국채금리 추가 상승을 제한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0.6bp 하락한 3.99%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7bp 상승한 4.48%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1.7bp 상승해 5.046%를 기록. 5% 선을 이틀 연속 웃돌았는데 이날 진행된 국채입찰 결과도 영향을 미침. 앞서 3년물, 10년물에 이어 이날 미 재무부는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신규 국채 입찰을 진행. 결과 낙찰 금리는 5.046%로 결정. 이는 입찰 직전 유통 시장 금리보다 소폭 높아진 금리로 강하지 않은 시장 수요를 반영. 미국 30년 만기 국채 표면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8년만에 처음.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1.4% 급등해 지난 2022년 3월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

장 큰 폭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0.5% 상승을 크게 상회. 근원 PPI의 전달 대비 상승률도 1%로 2022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대폭 상회. 다만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반영되는 항목들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함. 한편 미국 상원은 이날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안을 통과시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궤를 함께 하며 시장 기대를 높였던 인물이지만 거시 지표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음.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다소 높은 60% 중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 중반대에서 30% 초반대로 약간 낮아졌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대로 낮아짐.

달러 사흘째 강세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날까지 사흘 연속 상승.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파운드화가 낙폭을 축소하는 등 강세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있었지만 4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년래 최고를 기록하자 인플레 우려를 반영하며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함.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211% 상승한 98.501을 기록. 파운드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약세 압력을 받았지만 스타머 총리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는 더 타임스 보도가 있었고, 새로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도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부각되자 낙폭은 축소. 파운드-달러 환율은 0.118%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0.258% 하락.

전일 주간 거래에서 1,500원대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이다 1,490.6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횡보하다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침. 야간 거래 종가는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30원 하락한 1,489.30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00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60원 하락한 1,489.00원을 기록.

국제유가 나흘만에 하락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처음으로 하락.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오전 중 1% 중반대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란 문제 진척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오후장 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1.14% 하락한 배럴당 101.02달러에 마감.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선은 전일에 이어 이틀째 상회.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5.63달러로 전장 대비 2% 하락.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직전 주 대비 430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밝혔음. 감소 폭은 전문가 예상치 210만 배럴 감소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것.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회원국의 생산량이 3~4월 누적으로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도 기존의 하루 약 140만 배럴에서 약 120만 배럴로 하향 조정.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0.05% 소폭 상승.

국제 금 가격은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을 웃돈 영향으로 긴축 우려가 커지며 초반 하락 압력을 크게 받았지만 유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반등.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0.29%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4,700.30달러를 기록. 은값은 전거래일 6거래일만에 하락했지만 하루만에 반등.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3.6% 상승한 온스당 88달러 후반대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